

조선산업, 선진현장을 가다

③ 울산 현대중공업

도시 인프라 구축에 3,000억 썼다

한국의 조선업을 대표하는 울산의 현대중공업은 지난 85년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

협력사 포함 직·간접 고용인원 10만명 달해 11년째 글로벌 넘버원... 올 매출 15조원 기대

해양플랜트의 경우 1976년 사우디아라비아의 주베일 항만 하역설비공사...

최고의 설계인력과 현장인력, 최적화된 설비시스템을 바탕으로...

수립했다.

특히 2005년 1월 중국 선주사인 코스코사로부터 '꿈의 컨테이너선'...

지난해에는 114척, 1천17만G/T, 114억불에 상당하는 사상 최대 수주...

선을 20척 수주, 고속성장예상되는 세계 LPG 운반선 신조시장을 주도해나가고 있다.

9개의 건조도크와 6기의 초대형 굴리악트레이를 보유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은...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올 매출목표는 15조2천억원, 수주목표는 181억불에 달한다"면서 "향후 LNG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석유사업 관련 선박 등 고부가가치 선박을 선택적으로 수주해 수익을 증대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역인프라 구축에 3천억원 투입=현대중공업 가족은 협력사를



세계 최대의 현대중공업은 LNG선 뿐만 아니라 LPG선 수주에 주력, 수익률을 최대한 높여가고 있다. 도크에서 선박을 건조하고 있는 모습.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포함한 직간접 고용인원 10만명에 다 가족까지 포함하면 15만명에 육박한다. 조선부문 설계인력만 1천300여명에 달한다.

재대금이 울산지역의 금융권을 통해 유통됨으로써 지역경제의 기초를 탄탄히 다지고 살찌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여명이 참가하는 국내 최대의 문예 행사인 '2007년 울산 문화예술의 도시로 탈바꿈'이 열렸다.

현대중공업이 울산시에 내는 지방세는 연간 200억원이며, 또 매달 1천억원 이상의 급여(연간 1조5천억원)와 3천억원(연간 3조5천억원)의

이밖에 현대중공업은 도로 개설, 도서관 신축, 공원 시설물, 근린 체육공원 및 운동장, 등대 등 지역 인프라 구축에만 3천여원을 투입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지난해 잦은 총파업 올해도?

광주·전남경총 CEO 설문 35%가 "올 노사관계 불안"

올해 광주·전남지역 노사관계는 지난해보다 다소 불안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광주·전남경총총회(회장 임홍섭)가 지역 기업 경영인 93명을 대상으로 '2007년 노사관계 전망'을 조사한 결과 '2006년과 비슷한 수준(41.8%)'에 이어 '전년에 비해 불안해질 것(35.2%)'이라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비정규직 보호법

률과 노사관계 선진화법안이 국회 통과된 데 따른 불안감이 반영된 때문이며, 특히 지난해의 잦은 총파업 여파가 올해도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노사관계 불안요인으로 ▲대선 선심성 공약제시와 불법행위에 대한 법집행 미흡(20.0%)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사내하청, 비정규직 투쟁증가(13.2%) ▲대선·총선과정에서 노동계의 정치활동 강화(12.4%) ▲경제여건 불안에 따른 구조조정 문제(11.6%) 등을 꼽았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보해, 저도소주 대응... '천년 잎새' 출시

최근 소주의 저도화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는 가운데 보해양조(대표이사 임건우)가 저도 소주의 아쉬움을 채워주는 소주를 새롭게 출시했다.

다음달 2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판되는 '천년잎새'는 기존 저도 소주보다 알코올 도수가 2도 높은 22도 소주. 보해는 '소주의 참맛, 2% 부족할 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저도 소주에 아쉬

움을 갖고 있는 소주 마니아층을 대상으로 적극 공략할 방침이다.

'천년잎새'는 초순도 주정 정제과정으로 맛이 보다 깨끗해졌으며, 22도의 알코올 도수로 소주 본연의 참맛을 살렸다. 360ml 출고가는 830원으로, 1차 할인매장과 편의점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판매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종태기자 jilee@

광주 1년간 아파트 매매 5만건

작년 부동산 거래 65% 차지

지난해 광주지역은 아파트 매매 건수가 전체 부동산 거래의 65%에 달했으며, 거래가 성사된 아파트 가운데 70%가량은 1억원 이하의 중저층 물량으로 나타났다.

26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2006년 부동산거래현황 및 아파트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에서 거래된 부동산 물량은 총 7만4천931건으로, 이 가운데 65.4%(4만9천25건)가 아파트로 집계됐다.

물건별로는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거래가 68.7%(5만1천468건)로

가장 많았으며, 토지(19.7%·1만4천766건), 단독주택(6.8%·5천677건), 기타(4.8%·3천630건) 등의 순이었다.

아파트의 경우 1억원 이하가 전체의 68.7%(3만3천686건)에 달한 가운데 1억~3억 30.5%(1만4천938건), 3억~6억 0.8%(397건) 등으로 나타나 중저층 물량이 거래 물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전남은 지난해 12만8천841건의 부동산이 거래된 가운데 아파트는 19.5%(2만5천175건)에 그쳤다. 전남은 또 토지가 전체 부동산 거래 건수의 70%(9만581건)에 달하면서 광주와 부동산 거래 물건 면에서 대조를 보였다. /최경희기자 choice@

GM대우 고객 시승센터 남구 송암동에 문 열어

GM대우와 대우자동차판매는 최근 전국에서 10번째로 광주 남구 송암동에 고객시승센터(Test Driving Center)를 열었다. 이에 따라 대우차판매는 광주와 서울(2개소)·인천·안양·대전 등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 체계적인 타깃 체험마케팅을 펼치게 됐다.

대우차판매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까지 전국 누계 시승인원은 6만5천명에 달하며, 이중 절반이 넘는 54%가 차량을 구매했다고 밝혔다.

고객시승센터는 1년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시승을 희망하는 고객들은 고객시승센터(1544-6655)나 회사 홈페이지(www.du.co.kr) 및 가까운 영업소를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채납자 숨긴 재산 신고대 5% 포상

재정부 관세법 개정안... 고금가구 등 면세 범위 확대

해외에서 이삿짐을 들여올 때 담보 없이 우선 짐을 받고 나중에 관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또 채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징수액의 2~5%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및 '수출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 특별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신속한 이사회를 통관을 위해 담보제공 등의 조건없이 관세를 통관 이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도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통관 이후 납세가 허용되지만, 담보 제공에 따른 절차가 번거로워 이에외규정을 활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 품목당 1개까지만 면세되는 고급가구나 조명기구, 전자음향기기, 피아노, 컬러TV, 실크양탄자 등에 대한 기준도 현실적으로 조정됐다. 지금까지 개정 '200만원 초과'였던 이사회물 가구의 관세 부과 기준은 '500만원(조당 800만원)'으로 높아졌고 컬러TV 크기 기준도 '29인치 초

과'에서 '42인치 초과'로 상향조정돼 관세 면제대상이 늘어났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이사회물로 50인치 TV 1대와 32인치 TV 1대를 들 경우 '29인치 초과' 기준에 2대가 모두 해당, 1대는 관세를 물어야 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32인치는 개수를 따질 필요 없이 관세 대상

이 아니고, '42인치 이상'인 50인치도 1대까지 면세이므로 결과적으로 관세를 한 푼도 낼 필요가 없다. 실크양탄자의 경우 이 기준이 기존 '5㎡ 초과'에서 '200만원 초과'로 바뀌었다. 현행 규정상 '충전식'에 한해서만 관세가 면제되던 보충기용 배터리의 면세대상도 모든 종류의 배터리로 확대됐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세무조사때도 '미란다 원칙' 적용 '납세자 권리현장' 10년만에 개정

사업자등록이나 세무조사때 납세자에게 교부되는 '납세자 권리현장'이 제정 10년만에 처음 개정된다. 국세청은 지난 1997년 6월 제정된 납세자 권리현장을 오는 3월3일 납세자의 날을 전후해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는 납세자의 권리를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이 작년말 개정된데다 권력기관 이미지에서 탈피하

고 납세자가 가까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따뜻한 세정'을 표방해온 전군표 국세청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검찰이나 경찰이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자백을 받기전에 묵비권 등의 권리를 알려줘야 한다는 '미란다 원칙'이 세정에 반영된 것으로 대부분 선진국은 납세자 권리현장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종태기자 jilee@

Advertisement for '방수' (Waterproof) products, featuring a cartoon character and various product images. Text includes '살아 숨쉬는 고어텍스 방수제' and '드림 다목적 특수 방수제'.

Advertisement for 'Cell Banking' (세포은행), featuring a large red heart graphic with the text 'Cell Banking' and '생명의 은행, 건강할때 자신의 세포를 보관해둔다기'.